



1 ‘오징어’ 각종 해외수상 유력 2 ‘헌트’ 영화 감독으로 데뷔

내년 1월10일 골든글로브 등 시상식 후보
제작비 100억원 규모 영화 연출…새 도전

“돌아와 세상을 위해 뭔가 할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11월 AP통신 인터뷰에서 시즌2 제작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올해 9월17일(이하 한국시간) 공개한 시즌1이 넷플릭스 사상 최대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 신드롬을 몰고 왔으니 시즌2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진 터였다.

황 감독의 언급 속 주인공은 성기훈이다. ‘오징어게임’의 주연 이정재가 연기한 캐릭터! “언제, 어떻게 나올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말로 황 감독은 아직 이야기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정재가 새로운 해에 내디딜 행보는 세상의 기대를 낳기에 충분하다.

내년은 무엇보다 그가 데뷔 30주년을 맞는 해여서 기대감이 더해진다.

●해외 수상 노린다

이정재는 2021년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힘입어 미국 지상파 방송사의 인기 토크쇼에 출연하는 등 새로운 무대를 밟았다. 뒤이어 미국 고섬어워즈를 비롯한 다양한 시상식의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다.

특히 내년 1월10일은 그에게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이날 잇따라 열리는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의 크리스티프 초이스 어워즈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남우주연상 후보에 나란히 올랐기 때문이다. 또 19일 미국 데드라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이 호주 영화·TV예술아카데미(AACTA)의 AACTA 어워즈 작

품상 후보에 오른 가운데 이정재도 남우주연상을 노리게 됐다. 미국 필름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의 ‘뉴 스크립티드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에도 노미네이트됐다.

올해 활약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NYT)는 그를 올해 “TV 분야 샛별”로 선정했다. 영화·연극·음악 등 문화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을 꼽아온 NYT는 이정재가 ‘오징어게임’에서 “빛더미에 올라앉은 도박 중독자 성기훈 역을 맡아 말할 수 없는 공포를 해쳐 나가며 비통하고 놀랄 정도의 미묘한 연기를 펼쳤다”고 호평했다.

●감독 데뷔까지…데뷔 30년, 새 전성시대

이정재는 이 같은 해외의 호평을 바탕 삼아 또 다른 새 무대로 향한다. 제작비 100억원 규모로 직접 연출한 영화 ‘헌트’이다.

1980년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두 요원이 남파 북한 공작원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이정재는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동시에 주연까지 맡아 연기했다. 11월 중순 모든 촬영을 마친 그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후반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정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지 스태프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다”면서 “연출과 연기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1992년 모델로 데뷔한 뒤 이듬해 SBS ‘공룡선생’으로 연기를 시작한 지 30년. 이제 다시 활짝 열린 자신의 시대를 새롭게 맞으며 이정재는 새해 초부터 해외 시상식 등 바쁜 행보를 내디딜 전망이다.

그가 “세상을 위해 뭔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배우 이정재가 11월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고섬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 위를 걷고 있다. 이정재는 ‘오징어게임’으로 고섬 어워즈 말고도 골든글로브 등 미국 주요 시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노리고 있다.

뉴욕(미국) | AP·뉴시스

연예뉴스 HOT 5

BTS, 2년 연속 영 ‘브릿 어워즈’ 후보 올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영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브릿 어워즈’(BRIT Awards)에 2년 연속 후보로 올랐다. 19일(한국시간) 브릿 어워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BTS는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최근 40년 만에 컴백한 아바(ABBA)를 비롯해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파크 만든 그룹 실크 소닉 등과 경쟁한다. BTS는 지난해 한국가수 최초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음반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내년 2월9일 영국 런던 오투(O2) 아레나에서 열린다.

성시경, SNS 통해 증간 소음 논란 사과



성시경

가수 성시경이 증간 소음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성시경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웃분께 그날 직접 가서 사과드렸다”며 “다행히 잘 들어주셨다.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은 최근 한 누리꾼이 “윗집에 가수 S씨가 산다. 매일 같이 쿵쿵쿵 발랑치에 지금은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있다”며 증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해당 연예인으로 의심을 샀다. 성시경은 “고생해주는 밴드 멤버들과 식당을 가려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집에서 저녁 만들어 대접했는데, 다들 음악 듣자고 늦은 시간 1층 TV로 유튜브 음악을 들은 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평소 “의자 끄는 소리 안 나게 소음 방지패드를 달고 처음 슬리퍼도 신고 거의 앞꿈치로만 걷는다”며 증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신양, 서울아트쇼 통해 미술작품 공개



박신양

최근 국립안동대 대학원 석사 과정에 합격한 박신양이 미술작가로도 나선다. 박신양은 11월 2022학년도 안동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에 합격했다. 뒤이어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A홀 전관에서 열리는 ‘서울아트쇼’에 특별 초대작가로 참여해 작품을 공개한다. 김중근 미술평론가의 추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박신양은 7~8년 동안 작업해온 130여점의 작품 중 10점을 출품한다. 이번 전시를 통한 작품 판매 수익금은 모두 안동대 미술학과 장학금(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미운 우리새끼, SBS 2021 연예대상 수상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새끼’(미우새)가 ‘2021 연예대상’을 차지했다.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상민은 ‘미우새’ 팀을 대표해 “모두가 대상을 받아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동엽과 서장훈이 진행하는 ‘미우새’는 이상민, 김종국, 임원희, 탁재훈 등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 사랑을 받고 있다. 최우수상은 ‘미우새’, ‘돌싱포맨’에 출연한 탁재훈, ‘런닝맨’ 양세찬, ‘골 때리는 그녀들’ 박선영, 최우수 프로그램상은 ‘런닝맨’, ‘골 때리는 그녀들’ 등이 받았다.

개그맨 장동민·래퍼 답블로우 각각 웨딩마치



장동민

개그맨 장동민(42)이 19일 결혼했다. 장동민은 이날 제주도에서 여섯 살 연하 연인과 예식을 올렸다. 비공개 예식은 그의 ‘절친’ 유세윤과 유성무가 진행했다. 장동민은 최근 소속사를 통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랑하는 이의 남편이 되려 한다”고 결혼 소식을 알렸다. 래퍼 답블로우도 이날 웨딩마치를 올렸다. 그는 당초 올해 2월 결혼식을 올리려다 감염병 확산으로 연기했다. 예식 전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답블로우는 2007년 데뷔해 ‘작두’, ‘버킷리스트(Bucket List)’ 등을 선보여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힙합 노래상·올해의 음악인상 등을 받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팬미팅·콘서트도 ‘메타버스’서 만나요

송은이·김숙, ‘계더타운’서 팬미팅
힙합스타들 ‘크립토펙셀’서 콘서트
감염병 확산에 새로운 무대 떠올라

스타들이 잇따라 메타버스로 날아간다. 올해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들이 메타버스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났던 가운데 관련 흐름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콘서트와 팬미팅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송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방송인 송은이와 김숙이 20일 오후 8시 30분 메타버스 플랫폼 ‘계더타운’을 통해 팬미팅을 연다. ‘2021 비보타운 메타버스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송은이가 이끄는 콘텐츠 제작사 컨텐즈랩 VIVO(비보) 사무실을 공연장으로 구현한다. 또 가상의 캠핑장 등도 마련해 실제 팬미팅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의 공간으로 꾸민다.

타이거JK와 윤미래, 비지와 비비 등 힙합스타들도 메타버스로 향한다. 27일 메타버스 플랫폼 ‘크립토펙셀’을 활용한 콘서트 ‘레벨업’을 펼친다. 접속할 때 주소만 알면 별도 가입이나 앱 다운로드 등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업체 켈릭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 퍼소나스페이스는 연예인 ‘아바타’와 ‘버추얼휴먼(가상인간)’ 등 이른바 ‘부캐’를 활용해 ‘세계 최초 메타버스 아바타쇼’를 표방하는 방송프로그램 ‘부캐전성시대’를 19일 선보였다.

이처럼 연예계에도 메타버스와 이를 무대 삼는 다양한 콘텐츠가 다채롭게 이어지



고 있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비대면’ 소통 방식이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특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1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유력 무대로 떠올랐다. 독일 통계 플랫폼 스태티스타는 날로 커져가는 메타버스 시장규모가 2024년 약 329조85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레벨업’ 콘서트를 여는 브랜드 스토리



텔러 그룹 컨트롤 측은 “다양한 이벤트 등을 활용해 유저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콘서트 브랜드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은이는 “처음 시도하는 메타버스 무대여서 50명만 초청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팬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21~27일 ‘계더타운’을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민주화운동 훼손”…‘설강화’ 첫방송부터 논란

방영 중지 청원 10만여명 동의
일각선 “1회 만에 비판 지나쳐”

JTBC 새 토일드라마 ‘설강화:스노우드림’(설강화)가 18일 첫 방송 직후부터 양극의 시청자 반응에 휩싸였다. 남파 간첩인 주인공 등 주요 인물과 극중 상황이 6·10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7년을 배경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직 이야기 초반이어서 비판을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시선도 적지 않아 시청자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는 여대생 역 지수가 우연히 마주친 남파 간첩 정혜인을 운동권 학생으로 착각하고 도와주는 1·2화 속 설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해 ‘설강화’의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현재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민주화운동 당시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저런 내용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 분명히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설강화

라는 주장을 담았다. ‘설강화’는 앞서 올해 3월에도 남파 간첩과 민주화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그리는 내용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인물 소개에 그쳤으며, “단 1회 만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드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